

2012년 1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861조회)

갑자기 25m 자라는 대나무
突然25m育つ竹

어느 중국 대나무는
ある中国の竹は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오 년 동안은
種をまいた後、ほとんど5年のあいだは

아주 작은 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とても小さい筍さえも何も見えない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구조의
総ての成長は地下で行われる。複雑な構造の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나가면서
根が、地下で縦に、横に、伸びながら

형성된다. 그러다 다섯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形成される。しかし、5年が終わっていくくらいで

갑자기 약 25미터 높이로 성장한다.
突然約25mの高さに成長する

- 파울로 코엘료의《알레프》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アレフ>より -

* 하루 아침에 25m나 쑥 자라는 대나무.
* 一日で25mもぐっと育つ竹

링컨학교를 해보니까 아이들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リンカーン学校したので、子供たちもその竹のようだという考えを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잠재력에 꿈을 심어주면
するようになります。彼らが持った潜在力に夢を植えてあげれば

어느 한 순간 솟아오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ある一瞬にほとばしる姿を発見します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その驚くべき光景を見ることがどれだけ

보람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価値があって、感謝することかわかりません

희망이 보입니다.
希望が見えます

순 [筍]

1. [명사] 筍; 木の枝や草の茎になる長く伸びだ芽。

종 [縦]

1. [명사] 縦。[동의어]세로

횡 [横]

1. [명사] 横。[동의어]가로1

별다

1. [자동사] 별다1의強調語。

2. [자동사] 「死ぬ」の俗っぽい語。

별다1

1. [자동사] 伸びる; 根が張る。

2. [자동사] 及ぶ。[센말]별다

쑥3

1. [부사] ひどく突き出るかへこんでいるさま:にゅっと; ぼこんと; ぼこっと; むっと。

2. [부사] 深くさしこんだり引き抜いたりしているさま:ぐいと; ぎゅっと; すぼっと; すっと

보람

1. [명사] しるし; 甲斐; 値打ち; 効果。

2. [명사] 目印; しるし。

타け [竹]

1. [명사] 『식물·식물학』 대나무. 대.

2. [명사] 《속어》대로 만든 관악기. ((尺八·笛 등))

2012년 1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1,106조회)

홀로 시골 땅을 지키나요?
一人で田舎の土地を守りますか?

거름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肥料のような存在になれといいます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희생정신,
他人のために自身を出してあげる、犠牲精神

배려와 같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配慮のような得を備えた人になれという

것이겠지요. 바빠 돌아가는 세상, 남 돌볼
ことでしょう。せわしくまわっている世の中、他人を面倒見る

사이 없이 정신없이 뛰어가도 모자라는
あいだからでもなく、夢中に走っても足りない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世の中だが、それでも、この地をまもるために

오체투지 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五体投地する人いるでしょう

어디 거름 같은 사람 없나요?
どこかに肥料のような人はいないですか?

홀로 시골 땅을 지키나요?
一人で田舎の土地を守りますか?

- 이우성의《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중에서 -
- イウソンの〈本当に大切なことはちょっと横にある〉より -

* 땅에는 거름이 필요합니다.
* 土地には肥料が必要です

그래야 거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뀝니다.
それでこそ、やせた土地が肥沃な土地に変わります

누군가 시골 땅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だれか田舎の土地を守る人が必要です

누군가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だれか人を育てて、生かすこ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홀로 남아 외롭더라도 땅에 거름을 주며
一人のこってつらくても、土地に肥料を与え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人を守る人がいてこそ

희망이 있습니다.
希望があります

홀로

1. [부사] 独り; 独りで; 単独で; 孤立して。

거름

1. [명사] 肥やし; 肥料。

덕목 [德目]

1. [명사] 德目; 徳を分類した個々の名称(忠·孝·仁·義·礼·智など)。

갖추다

1. [타동사] 備える; 整える; そろえる; 取りそろえる。

바빠

1. [부사] 忙しく; せわしく。

2. [부사] 早く; すばやく; 急いで。

돌:-보다

1. [타동사] 世話をする; 面倒を見る; 保護する。

정신없-이

1. [부사] 無我夢中で; 夢中で; うっとり; 泥のように。

고-たいとうち [五体投地]

1. [명사] 『불교』 오체 투지. 양무릎·양팔을 땅에 대고 손모아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함. ((불교도의 최고의 경례))

五体投地(고たいとうち)とは、五体すなわち両手・両膝・額を地面に投げ伏して、仏や高僧などを礼拝することである。

2012년 1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2,785조회)

망치질도 예술이다
槌で打つのも芸術だ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槌を下ろすときごとに

때리는 강도가 다르거든.
打つ強度が違うから

어떨 때는 더 세게, 어떨 때는 더 약하게.
あるときは、さらに強く、あるときはさらに弱く

이렇게 할 줄 알게 된 건 여러 해 동안
このように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数年間

이 동작을 반복한 다음이야.
この動作を反復のちだ

그렇게 무수한 반복을 하다보면,
このような無数の反復をすれば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私が考えてなくても

그냥 내 손이 이끄는 대로
ただ私の手が導くままに

때리는 때가 오지.
たたく時が来る

- 파울로 코엘료의《알레프》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アレフ〉より -

* 망치질.
* 槌打ち

쉬운 듯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たやすいようで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

누구나, 아무나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だれでも、いくらたやすくよくできることのようにも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決して簡単なことではないのを、必ず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

자기가 꿈꾸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自分が夢見ることでも、そのどんなことでも

무수한 반복을 통해 경지에 올라서야
無数の反復を通じて境地に上って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되면
鼓手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鼓手になれば

망치질도 예술이 됩니다.
槌打ちも芸術になります

망치질 → 망치 출처:두산동아
鎚で打つこと。

때리다

1. [타동사] 殴る; たたく; ぶつ; 張る。

2. [타동사] 打つ。

이끌다

1. [타동사] 引く; 引っ張る。

2. [타동사] 導く。

고수 [鼓手]

1. [명사] 鼓手; 太鼓を打つ人。

2012년 1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4,817조회)

내가 가는 길
私が行く道

'인생은 너무 복잡해.'
'人生はとても複雑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危険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어떤 길들은 계속 따라가고,
ある道をつとついでいて

다른 길들은 포기해야 했다.
他の道は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하지만 최악은 그것이 아니었다.
しかし、最悪はそれではなかった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一番悪いことは、自分がその道をちゃんと選択したのか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
一生疑いながら、その道を行くことだった

- 파울로 코엘료의《브리다》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ブリーダ》より -

* 인생은 여러 길입니다.
* 人生は、多くの道です

그 선택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その選択は深思熟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일단 선택했으면 '내가 가는 길'에
しかし、一旦選択したら私が行く道'に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선택했다는 믿음,
信頼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く選択したという信頼

행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
幸いづらいことが生じても、ちゃんとできるはずだという信頼

그 믿음이 확고해야 상황이 바뀌어도
その信頼が確保して状況が変わっても

흔들림없이, 의심없이, 깨끗하게
ゆれることなく、疑うことなく、しっかりと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歩い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의심 [疑心]

1. [명사·하다형 타동사] 疑心; 疑いの心; 疑念。
심:사-숙고 [深思熟考]

1. [명사] 深思熟考。

행:여 [幸一]

1. [부사] 幸いに; 若しや; 若しかしたら; ひよっとすると; あるいは。

상황 [狀況]

1. [명사] 狀況; 様子; ありさま。

끗끗-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かたい; しっかりしている; 氣丈だ; 屈しない。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強い; 固い。[작은말] 끗끗하다

2012년 1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3,952조회)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あの向こうに'何かがある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あの向こうに'何かがある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認識が可能な日常の境界をこえた

그곳에, 어떤 실재가, 어떤 힘이 있다.
そこに、実在が、力がある。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それは神秘的で、我々に慰安をあたえる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これからはそれについて、話をしよう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我々はそれを感じる

- 그렉 브레이든의《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중에서 -
- グレグ・ブレイデンの<なくした祈りの秘密>より -

* 산을 넘으면
* 山を越えれば

그 너머의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その向こうに、また違った世界があります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今は見えないその向こうの世界を見ることが

있어야 합니다. 산을 보면서 산너머를 보고,
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山を見れば、山の向こうを見て

사람을 보면서 그의 내면을 깊이 보고,
人を見ながら、その内面を深く見て

한 사람의 꿈을 보면서 꿈너머꿈을
一人の夢をみながら、夢を越えた夢を

바라 보십시오. 1차원을 넘어선
望んでください。1次元をこえた

'그 너머에' 뭔가가 있습니다.
'その向こうに'何かがあります

실재 [實在]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実在。
2. [명사·하다형 자동사] 實際に存在すること, またそのもの。

차원 [次元]

1. [명사] 次元。
2. [명사] 数学で一般的な空間の広がりや度合いを表わす数(直線は一次元, 平面は二次元, 立体は

20120113.txt

三次元である)。

Gregg Braden
グレグ・ブレーデン

2012년 1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518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한길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ハンギル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자연과 조화를 이루리라
自然と調和をなしましょう

개미들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アリたちは、環境を破壊せず

오히려 땅속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むしろ地の中に空気を通して

꽃가루가 널리 퍼져 나가게 하는 데 기여한다.
花粉が広がるように寄与する

개미들은 저희끼리 서로 방해하지 않고
アリたちは、アリたち同志で、お互い妨害せず

지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地球と完全に調和しながら

살아간다.
生きていく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상상력 사전》중에서 -
- ベルナル・ヴェルペール<想像力辞典>より -

*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보다
* 我々は自然と調和をなすより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むしろ自然を毀損して、破壊しながら生きています

차라리 개미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むしろアリが我々よりましです。これからでも、我々も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같이 공존하면 어떨까요?
自然と調和にいたりながら、いっしょに共存するのはどうでしょうか?

그 대답은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その答えは、各自の心にあります

이루다

1. [타동사] ある状況や結果になるようにする; 成す; つくる。
2. [타동사] 遂げる; 果たす; 完成する; 完了する。

널리

1. [부사] 広く; あまねく。
2. [부사] 寛大に。

퍼;지다

1. [자동사] 広がる; 広くなる; 伸びる; 張る。
2. [자동사] 広まる; 広がる; 広く行き渡る; 知れわたる; 流行する; はやる。

훼손 [毀損]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毀損。
2.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壞すこと; 壞れること。

ベルナール・ヴェルペール(Bernard Werber)